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 최종보고회

추진목표·규모·프로그램 등 심도있는 논의 대자연 속 차와 연관된 콘텐츠 즐기도록 마련

대한민국 차(茶)산업의 메카 보성군은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보성차의 세계화를 위해 2022년 제10회를 맞는 '보성세계차 엑스포' 실행운영 최종보고회를 지난 달 30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문화원장, 관내 차관련 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엑스포 추진목표와 규모,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2022년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는 △차와 만나다(茶), △차를 즐기다(茶), △소리에 담다(茶), △군민과 하나되다(茶), △철쭉에 물들다(茶)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차밭, 바다, 산 등 대자연 속에서 차와 연관된 콘텐츠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차와 만나다(茶) 존에서는 보성세계차 엑스포 주제관과 미디어아트 차산업관, 세계차품평대회, 세계티포럼, 세계차상회의, 월드티 챗지리페스티벌 등 보성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차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교류와 상생의 장으로 구성된다.

차를 즐기다(茶) 존에서는 디오라마 티뮤지컬&다신제, 월드티세레모니경연, 찾임을 이용한 오감만족 체험 등 싱그러운 차밭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소리에 담다(茶) 존에서는 차와 소리가 어우러진 소리경연대회, 조선합합콘서트 등 판소리 성지 보성서편제의 위상과 보성의 차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

군민과 하나되다(茶) 존은 보성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캐릭터를 활용,



전국민이 참여하는 퍼펫퍼레이드(인형퍼레이드)가 메인이벤트로 준비된다. 철쭉에 물들다(茶) 존은 앱을 활용한 차마고도길 트레킹과 일림산 정상 세계 최대 철쭉군락지&편백숲 인증샷콘서트 등 판소리 성지 보성서편제의 건강을 요가와 트레킹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2022년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를 통해 한국차 산



여수시 "나누면 배가 되요" 행복한 나눔 냉장고 확대 운영

주민 호응 높아 올해 3개소(동문동·국동·여천동) 추가

여수시는 지난해 전남도 사회혁신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던 '행복한 나눔 냉장고'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지난 3월 31일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각각 개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행복한 나눔 냉장고'는 동 주민센터 입구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가져가면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주민주도형 지역복지사업이다.

올해는 한화솔루션(주)에서 나눔 냉장고 확대 운영을 위해 후원금 3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작년에 월호동을 비롯한 5개소에 동문동, 국동, 여천동이 추가되면서 여수시의 나눔 냉장고는 8개소로 확대 개소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 나눔을 통해 기부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취약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힘을 모아 사각지대 없는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영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행복 나눔냉장고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해 힘든 시기에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행복은 더하는 지역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복한 나눔냉장고에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는 67명이며 1200만 원 상당의 후원으로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이끌었다. 이윤지는 1만5000여 명에 이른다.



고흥군 여성지원센터, 여성 취업 확대

상반기 여성 취·창업 및 윈데이 클래스 등 9개과정 150명 참여

고흥군은 최근 '꽃꽂이 윈데이 클래스'를 시작으로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주여성 등 150명을 대상으로 한식조리기능사, 운전면허, 아로마테라피 등 9개 과정을 순차적으로 개강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여성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선호하는 과정으로 수강생을 모집·운영하며 특히, 지난해 시범 운영한 나들 가꾸는 윈데이 클래스 과정으로 꽃꽂이, 마카롱만들기 등이 젊은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올해도 꽃꽂이를 포함한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경

력단절 놓여온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적 자립능력 기반을 통해 건강한 가정과 여성이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커피바리스타 등 75개과정 1,309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상반기에 여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여성능력개발 취창업 교육 등 실시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오는 16일까지 여성문화회관 명칭 공모

문체부 신도시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

순천시는 오는 16일까지 시민 누구나 모두가 이용 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 활동 공간과 학습거점으로써 의미있는 순천시여성문화회관의 새 명칭을 공모한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여성문화회관을 시민 모두를 위한 생활문화 공간·학습거점으로 재탄생시켜 신도시의 교육 문화 복합서비스 제공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명칭 공모전에 시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지역 문화·학습 거점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여 창의성 및 상징성, 대중성, 지역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신청은 순천시 홈페이지에

광양시, 지역관광 추진조직 공모사업 선정

광양시관광협의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년도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양시관광협의회는 업계·협회·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연계망 통합구축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추진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

협의회는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2억 5,000만 원(국비 1억 5,000만, 시비 1억) 외에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작년 10월 발기인대회 및 정립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1월 본격 시동을 건 광양시관광협의회는 든든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협의회는 안전여행문화 정착과 광양관광 브랜드를 목표로 주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코로나 시대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운영, 스토리 있는 광양 시티투어 등 기획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